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한국 부부의 사랑구조의 변화 양상

Changing patterns of marital love constructs among married men and women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강 사 강 진 경
강 사 신 수 진
교 수 최 혜 경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Lecturer : Kang, Jean Kyung

Lecturer : Shin, Soo Jin

Professor : Choi, Hye Kyoung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hanging patterns of marital love constructs among 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It is based on our prior research that showed each of the 3 dimensions of marital love(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derived from Sternberg's Triangular Theory of Love) shaped U pattern as the marriage continued. We analyzed 1687 respondents' answers by principal axis factoring with contextual point of view including individual, familial, and socio-cultural develop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ove constructs of Korean men and women in their marriage show different qualitative patterns as the marriage continued. Second, intimacy is the most powerful indicator of love, coming out the first factor in all the stages of marital relationships. Third, we can see marital stability from the locus of commitment with other components of love, and it could be apply to marital educational program for promoting marital stability. Forth, passion is found separated behavioral from perceived dimension except the first marital stage. As conclusion, it needs to analyze with family life cycle, birth and marriage cohort groups for examining closely the causes of this qualitative changes in marital relationships.

◆ 주요어: 부부관계, 사랑의 삼각 이론, 사랑구조, 결혼지속연수

I. 서론

사랑이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구되는 감정 중 하나이다. 국외에서는 사랑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핵가족 안의 정서적 유대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 아니라 결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과 함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강진경, 최혜경, 1996; 박의순, 1997; 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1999). 이제까지 진행된 사랑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 경험하는 인지, 정서, 동기, 행동을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다 역동적으로 이성 관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관계가 지속됨에 따른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랑에 기반을 둔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법적 계약으로 성사되며 일생을 두고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시작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인관계와는 구별하여 연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부부관계의 사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인관계와 구별되는, 결혼을 통한 남녀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더불어 현대 한국사회라는 역사적 시점과 문화적 공간에 따른 사랑의 특성과, 부부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다른 모습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기 이후의 각 개인의 발달단계, 즉 30대 전환기, 성인 초기 절정기, 중년의 전환기, 중년 입문기, 50대 전환기, 중년의 절정기, 노년기 전환기 등을 통해 완수해야 하는 발달 과업은 각 개인이 그들의 인생구조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78).

부부간 사랑은 일시적인,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성 및 역할 체계의 결합이므로 개인의 발달 뿐 아니라 결혼지속연수나 가족생활주기 등 가족 단위의 발달과 함께 부부의

사랑을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매우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을 경험하였으므로 역사·문화적 시간 틀 속에서 여러모로 상이한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을 가진 세대들이 함께 공존한다. 따라서 각 세대들이 만들어 낸 부부관계의 특성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발달과 함께 가족 시간의 지표에 따른 부부 사랑의 역동적인 변화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부부관계를 심층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는 방법론적으로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표집이 어렵고, 무엇보다 발달 연구에 적합한 종단적 연구 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횡단적 연구를 통해서라도 결혼기간별 부부의 사랑구조 단면을 살펴봄으로써 공동 경험의 축적 위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부부 사랑의 발달적 측면을 탐색해보는 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연수별로 나타나는 사랑구조의 변화 양상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발달을 함께 논의하는 동시에 개인 및 가족을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사랑의 삼각형 이론

사랑에 관한 여러 이론들 중에서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 이론(triangular theory of love)은 사랑을 친밀감, 책임감, 열정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이 세 구성요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변화함으로써 사랑의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랑의 삼각 이론에서 말하는 친밀감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 연결감, 유대감'(Sternberg, 1988a, p.120)을 의미하며, 책임감이나 열정과는 달리 부모나 친구나 형제자매 등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라고 하였다(Sternberg, 1986). 열정은 심리적 각성과 생리적 각성을 통해 나타나는 요소로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인 극치 등으로 이끄는 강렬한

욕망'(Sternberg, 1988a, p. 120)을 뜻한다. 결정/책임감은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을 지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정과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책임감'(Sternberg, 1988a, p.120)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책임감이 단기적인 결정을 하는데 꼭 필수 요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제도는 일생 동안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사회적 제도로서 합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의 측면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 사랑의 세 요소는 각각의 강도와 세 요소간 조합에 따라 사랑이 아닌 것(non love)에서 좋아함(liking; 친밀감만), 도취된 사랑(infatuated love; 열정만), 공허한 사랑(empty love; 책임감만),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친밀감+열정), 우애적 사랑(companionate love; 친밀감+책임감), 실제 없는 사랑(fatuous love; 열정+책임감), 완전한 사랑(consummate love; 친밀감+열정+책임감)의 8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랑의 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관계를 둘러싼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관계가 지속되면서 두 사람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변화함에 따라 사랑의 세 구성요소가 각각 다른 속도와 강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랑유형은 일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Sternberg, 1986).

Sternberg(1986)는 먼저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세 가지 구성요소가 관계의 성공 여부나 교제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소 다른 형태로 변화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친밀감은 처음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점차 느린 비율로 증가하고 마지막에는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관계의 초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의 정도는 상대방의 인지, 정서, 동기, 행동에 대한 예측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친밀감의 정도에서도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 열정은 일반적으로 빠른 증가 후에 습관화(habituation)가 나타나 같은 자극을 주어도 예전에 보이던 효과를 보이지 않다가 그 후 시작된 수준 이하로 감소하고 점차 회복된다고 하였다. 반면 책임감은 일반적으로 서서

히 증가하다가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책임감의 수준이 점점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관계가 더 장기화되면 수준은 다소 감소하게 되어 대체적으로 S 곡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사랑의 개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다른 연구자들(Acker & Davis, 1992; Hazan & Shaver, 1987; Hendrick & Hendrick, 1986; Lee, 1977)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Sternberg(1988a)는 세 요소의 변화 기준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대략 어느 시기부터 각각의 세 요소가 감소 또는 증가하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로 변화하게 되는지, 이후에 다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선형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Levinger(1988)는 Sternberg(1986)가 개념화한 사랑의 요소들이 결혼과정에서 개인 내부와 커플 사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a)을 통해 재개념화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책임감(commitment)은 인지적, 행동적, 감정적 과정의 상호작용 구조로서 안정된 실체라기 보다는 전생애에 걸친 역동적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고, 친밀감의 경우도 배우자와 공유하는 각본¹⁾의 역할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초기 관계에서 얻어진 긍정적 감정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변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 의미에서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잘 조직된 각본에 의한 친밀한 관계를 깨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다 세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인지적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배우자간 응집성(cohesion)인데, 이는 결혼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부부가 경험하게 되는 가까움과 공유하는 정도로서 배우자간의 적합한, 각본화된 행동 패턴을 의미하며, 이는 대체로 관계의 지속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열정은 관계의 초기에는 친밀한 행동 기능(intimate behavior function)을 하지만, 후기에는 점차 응집 행동 기능(cohesion behavior function)에 가깝게 되므로 심리적 각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이는 관계가 지

1) 각본(script)이란 '상호작용 행동에 대해 서로 기대하고 있는, 일련의 연속된 장면'(Mandler, 1980)을 말한다.

속됨에 따라 열정이 감소한다는 Sternberg(1986)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인지적 접근은 가족 생활주기에 걸쳐 동등한 사랑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응집성으로 보고 Sternberg(1986)가 설명한 사랑의 각 요소들이 이 응집성에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 결혼관계에서의 사랑이 질적, 양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강진경, 최혜경, 1996; 박의순, 1997)들이 Sternberg(1986)의 삼각 이론의 토대 위에서 사랑의 세 요소를 분류하고, 성별이나 연령, 결혼지위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각 구성요소의 변화 및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요인분석에 기초하여 요인을 분류하기보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세 구성요소를 함축하는 문항들의 종합 점수를 각각 산출한 후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인이나 부부의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차원이 이론대로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더욱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랑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Sternberg(1986)의 삼각 이론을 한국의 기혼 남녀에게 적용한 최혜경 외 2인(1999)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사랑의 삼각 이론에서 제시한 세 구성요소를 실증적으로 지지했으며, 결혼기간의 경과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들이 양적으로 변화함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결혼 5년까지는 친밀감이 책임감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나 이후 책임감 점수가 친밀감보다 더 높아진 점으로 볼 때, 결혼 연수가 각기 다른 부부들에게 있어서 부부관계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랑의 세 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사랑 구성요소의 양적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발달적 변화(developmental change)란 단순히 양적, 기능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발달 연구에서 '관계'와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Overton(1998)

은 "발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한 유형은 형태나 패턴 또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형상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이고, 다른 유형은 표준 상태로부터의 떨어져있는 정도의 증감으로 나타나는 변량적 변화(variational change)이다. 따라서 발달적 변화의 개념을 부부관계의 사랑에 적용시켜 볼 때 각 구성요소의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구조나 패턴 속에서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혼지속연수가 각기 다른 부부의 사랑 구성 요인들을 기초로 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부의 사랑구조 패턴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1995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조사된 여러 연구의 자료들(강진경, 1996; 김활란, 1996; 박의순, 1997; 이유숙, 1998)을 통합한 2차 자료로, 1687명의 기혼 성인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1차 자료는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표집되었고, 자료의 통합은 최혜경 외 2인(1999)의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사랑을 묻는 19문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문항은 기존의 연구(Acker & Davis, 1992; Davis & Todd, 1985; Sternberg, 1986)에서 사용한 사랑의 척도들을 기반으로 먼저 25문항을 구성하고, 그 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중복되거나 요인부하량이 0.4보다 낮은 문항을 제외한 결과이다(최혜경 외, 1999 참조). 특히 책임감의 구성요소에 하위 차원으로 포함되는 '결정'에 관한 문항들은 본 조사 대상이 혼인계약이 이미 결정된 부부이므로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 이론을 적용한 연구(최혜경 외, 1999 참조)결과를 통해 삼각 이론으로 한국 부부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결혼기간의 경과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들이 양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

간별로 사랑 구조가 질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정한 결혼기간에 있는 부부 들의 사랑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특 히 결혼기간을 5년 이하, 6-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가족생 활주기 및 성인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사랑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독립 변인들이나 중재 및 매개 변인 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맥락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인 발달 및 가족 발달, 역 사문화적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결과를 해석, 논의하 고자 했다. 개인의 발달은 주로 Levinson(Levinson et al., 1978; Levinson & Levinson, 1996)의 발달 이론 을 적용하였고 가족 발달의 지표로서는 결혼지속연 수를 적용하였다. 개인의 발달에 대해 Levinson의 발 달 이론을 선정한 것은 그의 이론이 심층 면접을 통

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발달에도 일반화할 수 있 는 이론으로 입증되었고, 전 생애를 통한 인생 구조 의 질적 변화를 생물학·심리학·사회학·가족학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발달 지표로 결혼지속연수를 적용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결혼지속연수가 기 혼 남녀에게 역사적 시간 개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나타날 수 있는 부부간 유대의 차이점은 친밀감 및 사랑을 발 달과업으로 삼는 청년기에 겪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 건 및 각 세대의 성장 배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와 같다.

선행 연구(최혜경 외, 1999)에서 한국 부부의 사랑 이 제 1 요인으로 친밀감, 제 2 요인으로 열정, 제 3 요인으로 책임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났다.²⁾ 이 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결혼지속연수별로

<표 1> 결혼지속연수별 연구 대상자의 특성³⁾

결혼 기간 년(명)	개인특성				성인발달단계	가족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
	성별 명(%)	평균 연령 세(SD, 범주)	평균 교육 수준 년(SD)	평균 소득 수준 원(SD)		평균 결혼 기간 년(SD)	가족 생활 주기	
0-5 (511)	남 148 (29.0) 여 363 (71.0)	29.2 (3.91, 20-42)	15.1 (2.33)	186만 (3.56)	성인초기 입문기 30대전환기	2.3 (1.51)	형성기	문민정부, IMF
6-10 (232)	남 90 (38.8) 여 142 (61.2)	35.9 (3.44, 29-48)	15.0 (2.40)	208만 (3.06)	성인초기 절정기	7.9 (1.42)	확대기	광주민주항쟁, 서울올림픽
11-20 (433)	남 207 (47.8) 여 226 (52.2)	42.5 (4.34, 32-57)	13.4 (2.83)	206만 (3.21)	중년전환기 중년입문기	15.9 (2.93)	확대완료기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 유신체제
21-30 (314)	남 134 (42.7) 여 180 (57.3)	51.7 (4.34, 42-65)	13.1 (3.42)	226만 (3.50)	50대전환기 중년절정기	25.3 (2.72)	축소기	4.19의거, 5.16혁명
31- (159)	남 69 (43.4) 여 90 (56.6)	62.2 (4.81, 51-75)	8.9 (5.13)	190만 (3.50)	노년전환기 노년기	39.1 (6.15)	축소완료기	식민통치, 6.25전쟁, 미군정기
합계	1649 (100.0)	41.26 (11.42)	13.6 (3.52)	208만 (3.46)		14.39 (11.79)		

이 요인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요인간 상관관을 고려하여 요인 추출은 주축 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사각 회전(direct oblimin) 방식으로 최종 요인 구조를 구하였다. 요인 적재량을 중심으로 사랑을 설명하는 각 문항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누가변량비율을 통해 부부간 사랑을 설명하는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에 나타나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결혼지속연수 5년 이하 부부의 사랑구조

이 시기는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 적응을 하는 시기 즉, 가족발달 상에서 보면 가족형성기에서 가족확장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해당한다. <표 2>에 제시되듯이 이 시기에 속하는 부부의 사랑구조는 친밀감, 열정, 책임감 등 사랑의 세 차원이 각각 독립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 분석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세 차원이 각각 분리되어 나

<표 2> 결혼기간 5년 이하 부부의 사랑구조에 대한 요인분석 (N=511)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친밀감)				
배우자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	.84	-.12	-.03	.58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배우자와 기꺼이 나누고 싶다.	.85	-.03	.02	.72
내 배우자를 신뢰한다.	.69	.02	.02	.52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69	.07	-.01	.51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71	.03	-.09	.46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81	.12	-.05	.73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68	-.03	.15	.60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돕겠다.	.58	.01	.16	.49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70	.05	.06	.60
(열정)				
배우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06	.76	-.06	.52
배우자와 성관계를 많이 갖는다.	.04	.66	-.01	.39
배우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즐겁다.	.04	.64	-.16	.56
배우자에 대한 생각으로 꽁 차있다.	.03	.55	.17	.43
배우자가 곁에 없을 때에도 생각한다.	.09	.49	.20	.45
배우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16	.51	.18	.52
(책임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유지하겠다.	.04	.01	.76	.63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12	.19	.58	.59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01	-.03	.63	.39
남은 여생동안 내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이다.	.07	.08	.75	.71
Eigenvalues	8.70	1.77	1.30	
누가변량비율(%)	46	55	61	

- 2) 최혜경·강진경·신수진 (1999),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애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p. 53의 <표 2> 사랑의 구성요소에 관한 요인분석 참조.
- 3) <표 1>에서는 결혼지속연수를 묻는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합계에서 나온 응답자의 수와 본 연구의 총 연구대상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타난 것은 결혼지속연수 5년 이하의 대상에서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에 속하는 부부가 결혼 이후 서로 상호작용을 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으므로 다른 결혼기간에서와는 달리 공동 경험의 축적이나 이전 단계를 포괄하는 역사로서의 사랑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지적 설명에 근거하여 볼 때 아직 부부간의 응집성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부부간 관계에 대한 각본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 즉, 서로간에 적응해야 할 면과 새로움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세 차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다른 시기들에 비해 부부관계에 대한 비교적 냉철한 평가와 재고가 뒤따르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책임감 요인이 제 3 요인으로서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결혼 초기의 불안정성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 대상자들은 평균 연령이 29.2 세로서 Levinson(Levinson & Levinson, 1996)의 분류에 따르면 성인초기 입문기 (Entry life structure for early adulthood: 22-28세)와 30대 전환기 (Age 30 transition: 28-33세)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있는 성인들은 대체로 인생에 있어서의 몇 가지 중요한 선택(사랑, 결혼, 직업,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 생활양식)을 하고 젊은 성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성인 초기의 인생 구조를 재평가하고 더욱 개별화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이전의 발달적 전환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과 함께 다음 구조를 형성하는 데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즉, 결혼초기의 적응 및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므로 대부분의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발달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신이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결정하여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평가와 재고는 관계의 영원성 또는 사랑의 배타성 등의 속성을 지닌 책임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러한 가능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랑에 있어서 책임감의 비중을 낮추었을 수 있다. 이는 결혼초기의 높은 이혼율 및 부부 갈등과 연결될 수 있다.

2. 결혼지속연수 6-10년 이하 부부의 사랑구조

〈표 3〉에서 결혼지속연수가 6-10년 된 대상들이 5년 이하의 대상들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은 친밀감 차원과 책임감 차원의 요인 적재량이 서로 밀접한, 우애적 사랑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실제적 정서, 가까움을 공유하는 정도인 응집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서로에 대한 새로움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부부가 부모로서의 경험을 갖게 되고, 부부관계 이외에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녀를 돌봄으로써 함께 하는 활동들이 부부간의 즐거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부부간 대화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부부 및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친밀감이 결합된 우애적 사랑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사랑의 두 번째 특징적인 사항은 열정 요인이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것이다. 열정 요인은 이 시기 이후 계속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두 하위 차원은 배우자에 대한 생각, 환상, 심리적 각성에 대한 평가 등을 나타내는 지각차원과 열정의 직접적인 표현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열정이 지각과 행동 차원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것은 첫째 직장, 가정에서의 시간 및 에너지 배분과 관련된 긴장감과 갈등의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 시기는 두 사람만의 관계보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면서, 부부 두 사람만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거나 둘만의 활동,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녀양육 및 부모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부부관계에서 열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열정 행동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성인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 시기는 대략 30대 전환기에서 성인 초기 절정기(Culminating life structure for early adulthood)에 해당하는 기간으

〈표 3〉 결혼기간 6-10년 이하 부부의 사랑구조에 대한 요인분석 (N=232)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친밀감)				
배우자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	.91	-.25	.05	.70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배우자와 거꺼이 나누고 싶다.	.72	-.10	.21	.61
내 배우자를 신뢰한다.	.82	-.01	-.16	.61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62	.13	-.01	.52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60	.16	-.05	.49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55	.31	.09	.63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76	.10	-.16	.60
배우자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돕겠다.	.77	.00	-.22	.58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56	.27	-.04	.51
(열정)				
배우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05	.06	.88	.50
배우자와 성관계를 많이 갖는다.	.03	.18	.41	.28
배우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즐겁다.	.14	.25	.51	.49
배우자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있다.	.06	.74	.11	.58
배우자가 곁에 없을 때에도 생각한다.	.09	.72	.07	.60
배우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02	.69	.12	.55
(책임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유지하겠다.	.63	.03	.02	.50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52	.18	.07	.50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53	-.11	.23	.37
남은 여생동안 내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이다.	.59	.02	.18	.56
Eigenvalues	8.38	1.98	1.21	
누가변량비율(%)	44	55	61	

로 일과 가족 유형을 재평가하고, 다음 인생 구조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인생 구조 속에서 보다 깊은 책임을 지니고, 성인 세계 안에서의 "연소자" 위치에서 "연장자" 위치로 점차 이동해 가는 시기이며 이에 따라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 시간 및 에너지 배분에 있어 긴장감과 갈등을 내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감, 갈등으로 인해 성적 행동의 표현이 지각 차원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설명은 인지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초기의 친밀한 형태의 열정(intimate passion)이 웅집된 형태의 열정(cohesional passion)으로 변화하는 전환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초기의 심리적 각성이 습관화로 인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열정 지각에 비해 열정 행동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부부간 성관계가 습관화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혼인 외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다른 통로로 승화시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결혼 생활의 낭만이 나 성적 욕구에 대한 기대와 실체가 분리되면서 기대만큼 실체가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성적인 영역에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외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성적인 욕구가 다른 생산적인 통로 예를 들면, 직장생활에 더욱 전념하게 되거나 자녀양육 또 는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승화될 가능성이 있다.

3. 결혼지속연수 11-20년 이하 부부의 사랑구조

결혼기간이 11-20년에 속한 대상들의 사랑구조는 친밀감 요인과 책임감 문항 중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관계)을 유지하겠다' 문항의 요인 적 재량이 밀접하게 나타났으며, 결혼기간 6-10년의 부부처럼 열정의 지각차원과 행동차원은 분리되어 나

타났는데, 다른 점은 열정의 지각차원과 책임감의 나머지 문항들이 함께 적재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먼저 이 시기 부부의 사랑구조에서 친밀감과 책임감의 문항 중 제도적 관계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함께 적재되어 나타났다는 점은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제도적 결혼에 대한 영원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배타성 문항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하겠지만 이는 부부관계에서 요구되는 사랑의 배타성과는 별도로 그러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부부에게 있어 배우자란 단지 함께하는 배우자일 뿐 연인으로서의 아내, 연인으로서의 남편에 대한 의식은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친밀감과 함께 이 시기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

되고 있음은 결혼지속에 대한 의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부관계의 친밀감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열정의 행동차원과 열정의 지각차원이 결혼 기간 6년 이후 계속 분리되어 나타나면서 동시에 열정의 지각차원 즉, 배우자에 대한 낭만적 환상이나 기대, 심리적 각성 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배타성과 함께 적재되었으나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대략 사춘기에서 청년기에 속하며, 부모로부터 벗어나 또래 집단과의 유대를 더 지향하는 시기이므로 이전 시기에 비해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다소 감소하므로 부부 서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표현적 성 행동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사랑구조에서

〈표 4〉 결혼기간 11-20년 이하 부부의 사랑구조에 대한 요인분석 (N=433)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친밀감)				
배우자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	.72	-.04	-.08	.57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배우자와 가까이 나누고 싶다.	.84	.03	.07	.66
내 배우자를 신뢰한다.	.79	.05	.06	.61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56	.14	-.14	.53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46	.14	-.18	.44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47	.20	-.31	.64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80	.10	.07	.65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돕겠다.	.71	.01	.07	.51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36	.17	-.36	.53
(열정)				
배우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07	.70	-.14	.57
배우자와 성관계가 많이 갖는다.	.01	.60	-.06	.36
배우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즐겁다.	.43	.57	.18	.57
배우자에 대한 생각으로 꼭 차있다.	-.04	.30	-.56	.49
배우자가 곁에 없을 때에도 생각한다.	.18	.37	-.36	.54
배우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01	.37	-.60	.65
(책임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유지하겠다.	.70	-.17	-.17	.57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38	-.02	-.44	.50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35	-.16	-.45	.44
남은 여생동안 내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이다.	.22	-.05	-.57	.53
Eigenvalues	8.95	1.64	1.14	
누가변량비율(%)	47	56	62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의 지각차원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은 마음에 품는 열정의 대상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 혹은 다른 삶의 영역으로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혼생활은 지키되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따라서 혼인 외의 관계나 불륜 등 부부관계에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 시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내용에서는 배우자간의 열정 영역에 있어서 부부가 행동뿐 아니라 기대와 지각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몰입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성인 발달상 중년의 전환기(Mid-life transition:40-45)에서 중년 입문기(Entry life structure for middle adulthood)에 해당하는 시기(Levinson & Levinson, 1996)로 30대를 지나온 자신의 인생(가치, 야망, 재능, 목표)에 의문을 제시하며, 과거의 선택과 우선 순위로 여겼던 사항들에 대해 재평가하고, 젊은 시절의 꿈과 타협하며,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를 발달시키는 시기이다. 즉 3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중년기에 자신의 과거를 재평가하고, 성욕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며, 오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려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의 발달단계에 놓여 있는 대상들에게 있어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는 부부라면 이와 결부되어 있는 책임감, 즉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신념이 흔들릴 수 있으며, 따라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어딘가에 있을 지도 모르는 낭만에 대한 오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생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혼인 외에서 찾아보려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부부간 친밀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열정에 대한 지각을 배우자 서로에게 몰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 이후 부부간 만족도 및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이 은퇴 이후의 부부관계는 이미 은퇴 이전 부부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는 것에서 중

년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부부간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4. 결혼지속연수 21-30년 이하 부부의 사랑구조

결혼기간이 21-30년에 속한 대상들의 사랑구조는 <표 5>와 같이 첫 번째 차원으로서 친밀감과 열정의 지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서로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두 번째로 열정의 행동 차원이, 세 번째로는 책임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 시기 사랑의 질적 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친밀감과 열정의 지각 차원이 함께 적재되어 낭만적인 사랑의 특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이 시기는 가족생활주기 상으로 자녀들이 모두 두 성장했음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군대, 결혼 등으로 자녀들이 원가족을 떠나는 진수기가 시작되며, 이로 인해 부부 상호간 관심과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게 된다. 성인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남성의 여성성 증가와 여성의 남성성 증가로 인해 성격발달 및 상호관계에서의 성차가 감소하며 따라서 보다 평등한 부부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낭만적인 관계로서의 부부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즉, 부부 상호간 친밀감과 관심은 열정의 지각 차원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부부간 친밀감 수준이 높다면 이 시기의 부부관계는 '제2의 신혼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열정의 행동차원이 열정의 지각차원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중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갱년기 현상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즉, 호르몬 분비에서의 주기적인 변동과 생리적, 정서적,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과 신체적 쇠퇴, 질병이나 부모의 죽음 등의 환경에서 오는 압박으로 열정의 표현 행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열정의 지각과 행동이 분리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마지막 요인으로 독립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이 시기가 부부 둘만의 활동이 어느 시기보다 증가하는 시기로

〈표 5〉 결혼기간 21-30년 이하 부부의 사랑구조에 대한 요인분석 (N=314)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친밀감)				
배우자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	.71	-.10	.19	.63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배우자와 기꺼이 나누고 싶다.	.72	-.09	.17	.64
내 배우자를 신뢰한다.	.72	-.11	.21	.66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88	-.05	-.14	.57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67	-.04	.02	.44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67	.18	.09	.69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61	.01	.21	.58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돕겠다.	.47	.09	.32	.58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61	.18	.10	.61
(열정)				
배우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00	.77	.04	.61
배우자와 성관계를 많이 갖는다.	.02	.76	.05	.60
배우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즐겁다.	.13	.67	.22	.73
배우자에 대한 생각으로 확 차있다.	.62	.25	-.13	.59
배우자가 곁에 없을 때에도 생각한다.	.50	.29	-.03	.52
배우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43	.24	-.03	.37
(책임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유지하겠다.	.12	-.04	.80	.72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03	.16	.70	.56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06	.10	.60	.45
남은 여생동안 내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이다.	.42	.05	.34	.51
Eigenvalues	9.68	1.53	1.05	
누가변량비율(%)	51	59	65	

서, 낭만적인 특성이 되살아나는 '제 2의 신혼기'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맞춰 부부생활이 올바르게 재편되지 않을 경우 결혼 해체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음(Rubin, 1970)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의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을 뒷받침한다.

5. 결혼지속연수 31년 이상 부부의 사랑구조

결혼기간이 31년 이상 된 대상들의 사랑구조는 〈표 6〉과 같다. 대체로 중년기 말기에서 노년기에 속하는 대상들의 사랑구조에서 첫 번째 차원은 친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열정의 행동 문항과 책임감 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세 번째 차원은 열정의 지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밀감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요인 즉, 가장 중요

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노년기 부부의 사랑은 오랫동안, 평생을 걸쳐 함께 해온 배우자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연결된 느낌을 갖는 친밀감으로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차원으로 열정의 행동차원과 책임감의 문항들이 가깝게 적재되어 있는 것은, 인지적 접근에 의하면 열정 차원이 응집 행동 기능(cohesion behavior function)으로 자리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오래된 부부관계에는 그간의 세월을 함께 하며 형성해 온 나름대로의 부부간 애정의 표현 방식이나 교류 방식이 있고, 또한 신체적 쇠퇴에 적응하여 노년기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열정 행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남은 여생동안을 부부로 함께 보내겠다는 책임감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열정 행동, 즉 성 행동은 반드시 직접적인 성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성 행동을 포함한다는 것(손승영, 1992)을 고려해볼 때, 부부간 둘 만의

〈표 6〉 결혼기간 31년 이상 부부의 사랑구조에 대한 요인분석 (N=159)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친밀감)				
배우자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	.96	.03	.07	.83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배우자와 기꺼이 나누고 싶다.	.75	.16	-.02	.80
내 배우자를 신뢰한다.	.89	.07	.07	.80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61	-.11	-.01	.31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63	.29	.06	.72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64	.08	-.25	.80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60	.12	-.19	.69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돕겠다.	.65	.14	-.12	.70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56	.06	-.28	.67
(열정)				
배우자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03	.88	.10	.71
배우자와 성관계를 많이 갖는다.	-.11	.89	-.06	.73
배우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즐겁다.	.06	.88	.04	.81
배우자에 대한 생각으로 팍 차있다.	-.02	.09	-.87	.85
배우자가 곁에 없을 때에도 생각한다.	.07	-.02	-.85	.80
배우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02	.02	-.89	.86
(책임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을 유지하겠다.	.23	.57	-.10	.66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14	.59	-.11	.61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01	.70	-.18	.72
남은 여생동안 내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이다.	.21	.47	-.23	.67
Eigenvalues	12.06	1.37	1.03	
누가변량비율(%)	63	71	76	

교류 방식이 있고 그 교류 방식에 대해 만족함은 부부관계를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것에 대한 확신 및 자부심, 신체적 쇠퇴에 적응한 부부간의 잘 조직된 열정 행동 각본이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오랫동안의 경험과 함께 해온 시간들을 통해 누적된 결과로서의 현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열정의 지각 차원이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서로에게 익숙하고, 상대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성적 기대나 환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습관화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 세대 대상자의 발달적 특징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자아 통합감을 구축하고 지나는 인생을 회고 및 평가하는 시기이다. 부부생활을 하며 함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결혼초기 이후 모든 시기의 부부와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이 시기의 부부들에게 있어 배우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정진웅, 1999). 이는 성인기 이후 자신의 인생에 있어 모든 역사를 배우자를 통해 재구성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부부의 사랑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소인 친밀감이란 인생 전체를 꿰뚫는 친밀감이며, 두 번째 요소인 열정 행동과 책임감의 결합은 일생 동안 자신이 경험한 열정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던 배우자에게 나타내는 회고적인 것으로서 부부 둘만의 교류 방식 확립과 노년기의 신체적 쇠퇴를 수용한 후 나타나는 열정 행동과 책임감의 결합이라 볼 수 있다. 습관화의 결과로서 열정의 지각 차원이 마지막 요인으로 밀려나 있지만 이러한 습관화는 곧 정(情)의 축적이 극대화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오랫동안 상대방과 같이 좋은 일과 곱은 일을 겪어 나가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진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곧 정든 상태인 것이고, 상대의 존재에 의해 조건화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두

사람이 함께 한 역사가 가장 깊어진 이 시기의 부부 관계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단서로서의 배우자를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역사성을 통해 정이 극대화된 상태로서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랑의 삼각 이론을 근거로 한국 부부의 사랑구조를 결혼기간에 따라 살펴보았다. 즉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간 사랑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횡단적 분석을 통해 각 시기 사랑구조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부간 사랑의 구조가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구조는 결혼기간에 따라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Sternberg(1986)의 삼각 이론에 대한 인지적 관점(Levinger, 1988)과 이에 따른 응집성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므로 결혼기간과 가족생활주기, 연령, 역사적 시간 등 상호 관련성이 있는 시간 지표가 사랑구조의 변화 패턴에 미치는 독립된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결혼기간을 시간 지표로 이용하는 데 있어 개인발달 효과와 가족발달 및 동시집단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연령 및 가족생활주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간 사랑의 구조는 질적으로 다른 패턴을 보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결혼만족도 또는 결혼안정성을 근거로 양적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둔 반면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에 있어서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각 결혼기간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부간 사랑의 구조와 이들 구조 변화가 사랑의 세 가지 차원별 상대적 중요성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한 시간에 의해 형성된 응집성은 사랑 각 차원의 상호관계를 통해 부부관계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족치료 및 가족생활교육에 적용함

으로써 부부문제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사랑을 설명하는데 친밀감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존재한다는 Levinger(1988)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도 결혼기간 전반에 걸쳐 친밀감은 -분리되든, 혹은 다른 요인과 결합되든- 부부간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부부의 사랑을 분석할 때 정(情)의 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정(情)이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접촉과 공동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정신적 유대감으로서 정(情)을 구성하는 네 가지 범주로서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 그리고 허물없음을 들 수 있다(임태성, 1995). 정(情)의 내용적 속성인 다정성과 허물없음은 사랑의 세 가지 요인 중 친밀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전 결혼기간을 통해 친밀감이 부부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한국 부부의 사랑이란 한국인의 다른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情)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결혼기간별로 친밀감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기 정(情)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결혼기간에 따라 정(情)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 사랑 각 차원의 변화 중 책임감 차원의 중요성 정도 및 다른 요인과의 적재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의 안정성 여부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제도적 결합이 결혼의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 결혼기간별로 이 제도적 결합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결혼 5년 이내인 부부와 21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부부의 경우 책임감 차원은 다른 요인들과는 독립적 이면서 사랑을 설명하는 세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총 분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설명력이 낮았다. 이는 이 시기에 있는 부부들의 사랑구조에서 책임감의 비중이 낮으며, 극단적인 경우 결혼 위기 혹은 해체 가능성을 설명한다. 반면 결혼기간이

6-10년 된 부부, 11-20년 된 부부의 경우처럼 책임감이 친밀감 차원이나 열정 차원과 결합될 경우에는 각 해당 결혼기간에서 친밀감이나 열정이 약해지거나 식을 경우 책임감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 사랑의 어떤 요소를 강화시켜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는 결과들이다. 물론 각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 불안정성의 원인이 이외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결혼생활교육 프로그램 등에 적용함으로써 결혼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정확한 원인을 도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원인 규명이 요구된다.

넷째, 사랑의 세 가지 요인(친밀감, 열정, 책임감) 중 특히 열정은 결혼초기, 즉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를 제외하고는 지각 차원과 행동 차원이 분리되었고, 결혼 11-20년, 31년 이상의 부부를 제외하고 열정의 지각차원의 상대적 중요성이 행동차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접근에 근거하여 열정이 친밀한 행동 기능과 응징 행동 기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며, 지각차원과 행동차원의 분리 및 결합은 열정 차원의 질적 변화를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결혼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생겨나는 습관화 또는 서로에게 잘 적용된 각본(script)을 형성하는, 민감한 요인으로서의 열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는 결혼생활의 권태나 외도, 메너리즘, 다른 영역으로의 대리적 몰입 등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기혼자들의 '애인 신드롬'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도 열정이나 책임감 차원의 질적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결혼기간을 주축으로 사랑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생활주기나 성인 발달의 효과는 대략적인 시간 범주를 활용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질적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기준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

를 위해서는 가족생활주기 및 결혼동시집단, 출생동시집단, 결혼기간, 연령 등이 모두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부부간 사랑의 구조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한 관계 패턴의 분석에 치중하여 부부간 사랑구조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높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20대에서 60대 이상에 걸친 포괄적인 연령 대와 각 결혼기간별 사례수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으며 한국 부부의 관계 및 결혼의 질을 분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제도적 부부관계에서 동반자 부부관계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후에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부부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고,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좀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맥락의 영향력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접수일 : 2001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7월 31일

【참 고 문 헌】

- 강진경(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경, 최혜경(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성차. *대한가정학회지* 34(4), 161-174.
- 김활란(1996). 중, 노년기 부부의 사랑과 자녀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의순 (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 부부의 사랑 對부모 애착, 부부애착과 부부 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승영 (1992).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이유숙(1998).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부부간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20.
- 임태섭 (1995). 정(情)과 한국인의 인간관계. 정·체면·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한나래.
- 정진웅 (1999). 생애를 비추는 거울 : 노령화 시대의 가족의 의미. 현대 가족 연구의 흐름과 전망. 1999년도 한국 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 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1999). Sternberg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에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pp. 47-59.
- 한남제 (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 Acker, M., & Davis, H. (1992).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9, 21-50.
- Branden, N. (1988). A vision of romantic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359-374).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avis, K. E., & Todd, M. J. (1985). Assessing friendship : Prototypes, paradigm case and relationship assessment. In S. W. Duck & D.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pp. 17-34).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Dion, K. L., & Dion, K. K. (1988). Romantic Love : Individual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264-292).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ilford, R., & Bengston, V. L. (1979). Measuring marital satisfaction in three generations; Positive and negative dim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387-398.
- Hatfield, E. (1988). Passionate and companionate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191-21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ze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 Hendrick, C., & Hendrick,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84-794.
- Lee, J. A. (1973). *Colors of Love*. Toronto: New Press.
- Lee, J. A. (1977). A Typology of Styles of Lov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3-182.
- Levinger, G. (1988). Can we picture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139-158).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 Mckee, B. (1978). 김애순 역(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evinson, D. J., & Levinson, J. D. (1996). 김애순 역 (1998).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 절. 세종연구원.
- Mandler, G. (1980). The generation of emotion: A psychological theory.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Theories of emo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Overton, W. F.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philosophy, concepts, and methodology. In W. Damon(Series Ed.) & R. M. Lerner(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5th ed., 107-188)*.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Rainwater, L. (1965). *Family Design: Marital Sexuality, Family Size, and Contraception*, Chicago:

- Aldine, In Scanzoni, L. D., & Scanzoni, J. (Eds.), *Men, Women, and Change: A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 (pp. 310-359). McGraw-Hill Inc.
- Rubin, Z. (1970).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265-273.
- Schaie, K. W., & Wills, S. L. (1996). *Adult Development and Aging*.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119-135.
- Sternberg, R. J. (1988a). Triangulating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pp.119-138).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1988b). *Construct Validation of a Triangular Theory of Love*. unpublished manuscript.